



# 끊임없는 개량으로 세계 최고목장을 꿈꾼다

## 흥천목장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종축개량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온 흥천목장 안래억 대표는 1989년 5월 27일 개최된 제1회 고능력우 평가대회에서 챔피언을 차지한 이래 18년만인 2007년 한국홀스타인품평회에서 그랜드챔피언의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 그랜드챔피언 수상소감



『흥천 주어러 루돌프 508호』를 출품하면서 “망신당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이틀에 한번씩 목욕을 시키고, 순치에 최선을 다했다. 더불어 미국에서 털깎기 장비를 구입하여 자주 털을 깎았다. 또한

처음 품평회장에 나가는 후계자(아들, 안준현)가 낙농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더욱 신경을 썼다”고 밝힌 안래억 대표는 수상소감을 묻자 “제1회에서 수상할 때에는 어린 마음에 한없이 기분이 좋았지만 이번에는 고맙고, 좋기도 하지만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먼저 앞선다”고 밝혔다. 품평회가 개최되는 이틀 동안 축산기자재 전시장도 못 갔을 정도로 출품우에 최선을 다 했다는 안래억 대표는 원활한 출품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엑셀란, 무쏘, 새벽, 삼마, 대원목장 등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젖소개량사업과 인연

1960년대부터 목장을 운영하고 있던 부친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젖소를 가까이하게 되었던 안래억 대표는 1981년 목장을 이어 받아 본격적으로 낙농인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미국, 캐나다의 홀스타인품평회를 참관하고, 혈통등록과 수정란이식 등을 실시하는 개량농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목장주인이 궁금해 하는 우사시설과 사양관리 등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고 오직 젖소만 보여주면서 혈통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고 한다. 즉 “돈만 있으면 규격화된 우사는 언제든 지을 수 있지만 개량된 우수한 젖소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고 강조하며 개량된 젖소를 보여주는 데 우리목장(흥천목장)에 있는 젖소는 젖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 젖소개량의 시작

철저한 기록관리가 중요하다 개량된 우수한 젖소의 중요성을 인식한 안래억 대표는 1982년 12만원/st 하는 정액을 구입하여 본격적인 개량을 시작하였는데 주위에서 저렇게 비싼 정액을 쓰다니 “미친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할 정도였다고 한다. 더불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더욱 철저한 기록을 하게 되었으며 태신, 연산, 성원, 롯데, 두산, 매일목장 등을 견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면서 목장의 미래를 설계하게 되었다고 한다. 더불어 유우군 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방문하여 검정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착유두수가 적다는 이유로 거절 받았다고 한다. 그 후 여러 번의 간곡한 부탁 끝에 검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한국종축개량협회의 혈통등록, 선형심사, 계획교배 등을 철저히 따른 결과 1989년 제 1회 고능력젖소평가대회에서 챔피언을 차지하는 등 성과를 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 안준현 후계자의 소감



경상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할 즈음 젖소에 대하여 너무 아는 것이 없어 그냥 목장에 들어가면 부친이 이루어놓은 목장을 망칠 것 같아 SnS사료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미국 Dairy EXPO를 참관하고, 젖소심사자 교육을 받으면서 젖소 보는 눈을 뜨기 시작할 시기에 이천시홀스타인품평회 심사위원을 맡은 댄 캐롤(DAN CAROLL)이 목장을 방문하여 심사교육을 하게 되었다. 교육을 받으면서 젖소들에 대한 심사가 있었는데 우수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 이에 자신감을 얻어 전국품평회에 출품하게 되었는데 계류장에 도착한 젖소들을 보는 순간 자신감은 사라지고 망신만은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걱정을 했다. 그런데 11부에서 최우수를 차지하고 그랜드챔피언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받는 순간 “너무 좋았고, 고마움과 앞으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한국낙농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유재복 대표(SnS사료 대표)가 보는 흥천목장

흥천목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원칙에 충실한 분, 목장을 잘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목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기록을 갖고 있는 목장으로, 옥수수가 안되면 왜 안 되는지를 과학적으로 확인하여 기록에 남겨둘 정도로 원칙에 충실한 분이다. 더불어 모든 것을 혼자하지 않고 관련기관을 적절히 활용하는 스타일, 즉 종축개량은 한국종축개량협회를, 사료는 사료회사를, 질병은 수의사에게 맡길 정도로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는 목장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델목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믿는다.

### 향후목장 계획

앞으로 한국낙농은 머지않아 5,000농가 내외의 시대 올 것으로 본다. 즉 우리나라 낙농산업도 전체적인 사육두수는 감소하겠지만 농가당 사육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흥천목장도 착유두수 200두에 일일 7~8톤의 우유를 생산할 계획으로 목장의 시설이나 장비를 준비하고 있다. 착유시설 또한 처음에는 로봇착유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높은 비용문제로 인하여 최신 로타리 착유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젖소개량방향도 새로 들어오는 착유시스템을 원활히 적용하고, 효율적인 목장관리를 위하여 생산성과 체형을 감안하면서 목장의 체구와 착유습관 등의 균일화 즉, 우군의 제일화 방향으로 개량의 최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복 대표(SnS사료), 안준현 후계자, 안래억대표(좌측부터)